

## 생태조경과 생태복원(XIII) 도시와 생태환경 : 도시에서 찾은 작은 자연<sup>1)</sup>



조 동 길

서울대 조경학과, 공학박사

도시의 모습은 삭막하기만 하다. 각종 오염과 갈수록 악화되는 환경조건은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도시에서 개구리의 울음소리를 듣는 지 오래되었고, 나비나 잠자리를 만나기도 여간 쉽지 않다. 그만큼 도시에서의 자연은 동경의 대상이 되어갔고, 우리가 자연을 만나기 위해서는 교외로 나가야만 했다. 경제가 환경보다 우선시 되는 상황에서의 이야기들이다.

물론 지금의 환경도 과거에 비해서 눈에 띄게 개선된 것은 아니지만 최근 들어서 도시에 자연을 도입하기 위한 노력이 분주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외국에 비해서 늦은 감이 있

으나, 우리나라에서 나타난 것은 1990년대부터이다. 갈수록 악화되는 환경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도시지역에서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복원하기 위한 노력들이 시작된 것이다. 최근에 언론을 통해서 자주 언급되는 뉴스중에 도시 대기환경이 나빠지면서 호흡기 질환 환자가 늘거나 수명이 줄어든다는 보도도 있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것은 도시에 녹지 등 자연환경이 줄어들면서 도시열섬현상이 발생하고, 결과적으로 도시는 온도가 높고 생활하기에 불편하며, 쾌적하지도 못하다는 것이다. 그만큼 환경의 개선은 경제적인 것 못지 않게 중요해지고 있다.

그렇다면 도시지역에서 어떻게 자연환경을 개선시킬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해 보아야 할 것이다. 여기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우선 현재의 자연환경을 최대한 보전해야 하며, 다음으로는 훼손된 지역을 복원해야 하고, 그리고 건축물이나 도로 등을 조성하면서 없어진 자연환경을 새롭게 만들어 주어야 한다. 필자는 이러한 방법들 중에서 도시의 자연생태환경을 개선시키기 위한 방법으로서 제일 마지막에 언급한 새로운 자연을 만드는 방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학술적으로는 자연환경의 창출(creation)이라고 하는

1) 이 글은 필자가 한국한센복지협회에서 발간하는 「복지」 2004년 3·4월호에 기고한 글입니다.

## 도시와 생태환경 : 도시에서 찾은 작은 자연

데, 구체적인 방법보다는 수도권에서 실제 조성된 사례들을 중심으로 하여 그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환경개선 효과를 중심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수도권에서는 최초로 생태공원이라는 이름을 달고 세상에 나온 여의도 셋강 생태공원이 있으며, 그 주변으로 여의도 광장을 공원화 하여 만들어진 여의도공원, 길동생태공원, 그리고 최

근에 조성된 선유도 공원 등 매우 다양한 공원들이 있다. 지금 소개하고 있는 공원들은 기존에 조성되던 공원과는 다른 “생태공원” 혹은 환경친화적 공원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 기존의 공원들이 인간의 이용 중심적인 공원이었다면, 생태공원은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지는 공원이라는 데 특징이 있다. 즉, 나비나 잠자리, 개구리, 새들이 사람과 함께 살 수 있는 곳을 말한다. 따라서, 말 그대로 생태적인 공원 (ecological park)이 되는 것이다.

더불어서 이러한 생태공원은 도시에 다양한 생물종들이 살기 때문에 어린이에게는 친숙하지 않은 자연속의 식물과 동물들을 접할 수 있어 자연체험이나 환경교육의 장으로서 활용된다. 그리고, 어른들에게는 시골에 자라던 혹은 어렸을 때 보아왔던 것들을 도심 안에서 볼 수 있어서 향수를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도시의 보도 옆에 혹은 건물 앞에 놓아 둔 작은 보리를 심은 화분만 하더라도 어른들에게는 향수를 느끼게 한다.

실제로 수도권에 조성된 여러 가지 자연의 모습들을 살펴보자. 우선, 최근에 조성된 유네스코 건물의 옥상에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할 광경이 펼쳐진다. 누가 사진 1의 광경을 보고 건물의 옥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 직접 가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곳이 옥상이라고 한다면 선뜻 놀랄 것 같다. 하지만, 이곳은 사진의 주변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건축물의 옥상이다. 이 조그만 공간에 물이 있는 습지를 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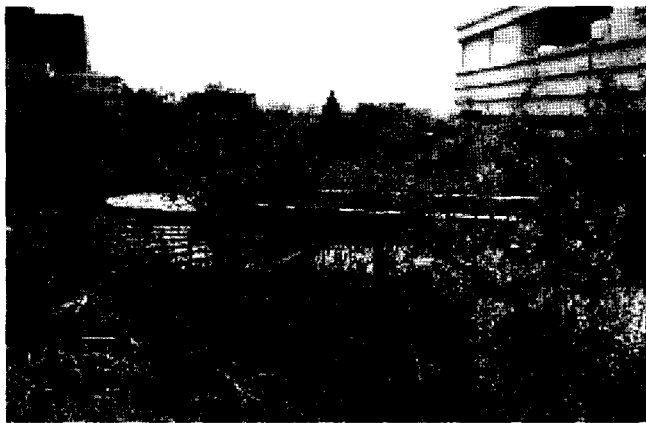


사진 1. 서울 명동 유네스코 옥상에 조성된 “작은 누리”의 습지와 숲의 모습



사진 2. 분당에 조성된 “하늘동산 21”의 습지에 사는 생물들을 보기 위해 어린이와 학부모가 찾아온 모습

들고 그 주변으로 다양한 나무와 풀들을 심어 말 그대로 작은 자연의 모습을 연출하였다. 이곳은 온갖 꽃피는 풀과 열매맺는 나무들을 도입하였고, 결과적으로 나비들과 잠자리, 새들이 찾아오고 있으며, 물 속에서는 개구리와 우리나라 토종 물고기들이 살고 있다. 그래서, 주변에 어린이들이 개구리나 잠자리들과 친구를 하려고 자주 찾아오는 명소가 되었다. 작은 누리에 사는 개구리들은 원래 분당에 위치한 경동그룹의 사옥 옥상에 조성된 “하늘동산”에서 가져온 것이다. 분당의 도심 한복판에다 1999년에 옥상을 이용한 생물들이 살 수 있는 공간을 최초로 만들어 준 것이다. 그리고, 그곳에서의 생물종들이 잘 살게 되자 서울시의 도심 한복판으로 옮겨온 것이다.

이러한 공간들은 생태공원이라고도 하면서 생물종들이 우선적으로 고려된 곳이어서 생물서식공간이라고도 한다. 생물서식공간은 곤충이나 물고기, 새들이 살 수 있는 공간을 말하며, 숲과 물이 있는 곳들을 잘 조성해 주면 쉽게 만들 수 있는 곳이다. 원래 이러한 공간들을 만들기 위한 시도는 여의도 샛강 생태공원이나 서울공고 생태연못과 같은 곳이 시초가 되고 있다. 그리고, 양재천을 자연적인 하천으로 만든 곳도 대표적인 사례지가 된다.

서울공고 생태연못은 원래 운동장가에 있던 작은 연못을 넓게 확장시키면서 생물들이 서식하기에 적합한 공간으로 만든 곳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도심지역에 만

든 소생태계로 보고 있다. 면적이 넓지는 않지만, 이곳에 조성됨으로써 다양한 생물종들이 살게 되었고, 학생들이나 지역주민들에게 호응을 얻는 공간이 되었다. 그리고, 오염되고 지저분하게 여겼던 여의도의 샛강이나 양재천은 자연친화적인 기법을 통해서 물을 깨끗하게 만들었고, 결과적으로 물고기가 다시 돌아오고, 이를 먹기 위해 새들이 다시 찾아오는 생태적인 공간으로 변모하였다. 양재천은 우리가 시골에서나 수영하고



사진 3. 학교운동장의 연못을 이용하여 자연적인 모습의 연못으로 조성한 곳



사진 4. 길동생태공원내 습지와 주변 산림의 모습

## 도시와 생태환경 : 도시에서 찾은 작은 자연

놀았던 그러한 모습을 여름철에 쉽게 볼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여의도 공원 같은 곳은 아스팔트로 뒤덮였던 곳에서 아스팔트를 걷어내고 새로 흙을 쏟아 부은 후 우리나라의 자연에서 볼 수 있는 숲과 계곡, 생태연못을 만들었다.

최근에 이러한 공간들은 매우 빠르게 늘어가고 있다. 이렇게 자연적인 공간으로 만들어 가는 이유는 여러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다. 우

선, 지속가능한 발전에서 화두로 삼고 있는 미래 세대에 대한 배려로 볼 수 있다. 우리의 현 세대가 개발을 명목으로 훼손하고 사라지게 만들었던 자연들을 미래세대에게만큼은 온전한 모습의 자연으로 남겨주어 우리가 누렸던 자연의 고마움을 그들에게도 남겨주고픈 것이다. 그리고, 도시에 작은 자연공간들을 만들어 감으로써 도시에 숲이 많아지고 맑은 물이 흐르게 될 것이며, 이들 생태적인 공간에서는 나비가 날고 새가 지저귀며, 개구리가 우는 그러한 곳으로 변모해 갈 것이다. 또한, 아스팔트와 같은 인공적 재료로만 뒤덮임으로써 더웠던 여름은 녹지의 푸르름으로 시원하게 변해갈 것이고, 결국엔 도시 속에 자연이 아니라 자연 속에 도시가 만들어지게 될 것이다.

이러한 날들이 언제 올 수 있을 까를 고민하고 우려할지 모르겠지만, 작은 노력과 실천 하나 하나가 모임으로써 도시에서 찾아볼 수 없었던 원자연의 모습들이 서서히 우리 곁에 섬을 알게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해 본다. 푸르름이 사람에게 주는 효과는 매우 많다. 육체적 건강과 더불어 정신적 안정감을 되찾게 하고 여유를 갖게 한다. 집 앞에 화단을 가꾸거나 아파트 베란다에서 화분을 가꾸는 것도 도시에 작은 자연을 만들어 가는 노력으로 볼 수 있다. 작은 생각으로 작은 실천으로 우리의 도시 모습이 점점 더 푸르러지고 풍부해지기를 바란다. ☀



사진 5. 여의도공원내에 만들어진 생태숲과 생태연못



사진 6. 작은 화분 하나는 어린이들에게도 꿈을 실을 수 있음.